

스마트홈, 음악 서비스와 시너지... 新 생태계 구축 '가속화'

삼성·LG, 플랫폼 연동 시장 선도
AI·IoT 결합, 맞춤형 서비스 확산
중소, 기술 혁신으로 생태계 확장
글로벌 IT, 음악 플랫폼 협력 경쟁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융합으로 스마트홈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면서 산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마트홈 기기의 연동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외 IT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216억달러에서 연평균 22.9% 성장해 2032년에는 약 633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1~2년 안에 전 세계 가정의 절반 이상이 최소 5개 이상의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스마트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를 제치고 1,2위를 유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양사는 스마트홈 플랫폼 시장에서 음악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를 연동해 삼성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손쉽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는 AI를 활용해 사용자



LG전자는 AI 홈 허브 '싱큐 온'에 플랫폼 플로(FLO)를 연동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위 사진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 전시된 LG전자 AI홈 존. /LG전자

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홈 루틴을 제안한다.

LG전자는 AI 홈 허브 'LG 싱큐 온'에 플랫폼 플로(FLO)를 연동한다고 16일 발표했다. AI가 탑재된 LG 싱큐 온은 다양한 AI홈 허브가 집안 곳곳에 설치된 센서로 고객의 말과 행동,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연결된 IoT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하며 고객을 케어한다.

향후 플로와 협업해 약 8천만 곡의 음원과 AI 추천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싱큐 온은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와 연동해 LG 가전제품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KT는 AI 스피커 '기가지니'도 카카오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과 연

동해 음성 명령을 통해 멜론의 음악을 재생하거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또 TV와 연결된 기가지니를 통해 멜론 콘텐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커넥티드카서비스'를 통해 카카오 AI 플랫폼과 연동해 차량과 스마트홈 간 연결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음성 명령으로 차량을 제어하거나 음악,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도 스마트홈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AI 기반 음악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직 큐브'는 고객의 감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재생목록을 자동 생성해 개인화된 음악 경험을 제공한다.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아이오티크'는 스마트 스피커와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가전

기기 통합 설루션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과 팟캐스트 서비스와의 연동을 확대 예정이다.

이 외에 스타트업 레가토는 스마트홈 표준인 '매터(Matter)'와 호환되는 스피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도 저전력의 와이파이 스피커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 확장을 돕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스마트홈과 음악 서비스의 협력은 활발하다. 구글의 '네스트' 스피커는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 아마존의 '에코' 스피커 역시 알렉사를 통해 아마존 뮤직, 애플 뮤직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네이버웹툰

日 웹툰 스튜디오

'넘버나인' 첫 투자

'네이버웹툰'의 일본어 서비스 운영사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일본 전자 만화 에이전시 주식회사 넘버나인에 투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네이버웹툰은 일본에서 창작 생태계를 확장하며, 글로벌 스토리텔링 콘텐츠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넘버나인은 협력을 통해 일본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창작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2016년 일본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넘버나인은 전자 만화 중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최근 웹툰 제작 스튜디오로 사업을 확장했다. 넘버나인이 제작한 웹툰 '신혈의 구세주'와 '나만 최강 초월자'는 지난해 '라인망가 2024 랭킹' 상위 10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작품들은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다.

/이혜민 기자

“MBK·영풍, 적대적 M&A 시도... 절대 함께하지 않을 것”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 성명서 발표
“기술 유출·산업 경쟁력 붕괴 우려
신사업 물거품, 국가적 손실 가능성”

고려아연이 미래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 원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재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기술진 일동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투기적 사모펀드 M

BK와 심각한 환경오염 및 적자 등에 시달리며 실패한 기업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고려아연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진들은 “우리는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MBK·영풍 측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은 지난 2024년 9월 MBK와 영풍이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기술인력들, 그리고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현 경영진과 함께 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MBK와 영풍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해온 고려아연을 뺏고 싶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적 M&A가 혹여라

도 성공할 경우 고려아연이 그간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사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며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단기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투기적 사모펀드다운 발상으로,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천박한 인식에 모멸감마저 느낀다”라며 “국가 기간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논할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LG, 라이프집 팝업 '낭만 오두막' 운영

광주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서 진행

LG전자가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에서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인 '라이프집(Lifezip)'의 팝업스토어인 '낭만 오두막.zip'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겨울 스키를 타기 위해 곤지암리조트를 찾은 고객들에게 따뜻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눈 속 오두막' 콘셉트로 꾸몄다.

고객들은 이 오두막에서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프리미엄 무선

스피커 LG 엑스붐 360, 초소형 4K 프로젝터 LG 시네빔 큐브 등 최신 LG전자 가전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숲 속 오두막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물류 현장에서 가전제품을 적재하고 나르는데 사용하는 나무 팔레트로 오두막 외관을 장식했다. 이 나무 팔레트는 추후 팝업스토어 등에 재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라이프집 회원 수는 지난해 1월 5만명을 넘긴 이후 1년만에 8배 가까이 늘어 최근 39만명으로 늘어났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와디즈 “AI 아트부터 피트 아우돌프까지”

'삼무서점' 오는 29일까지 진행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오는 29일까지 출판 기획된 '삼무서점'을 진행한다. 삼무서점(3無서점)은 차별, 재고, 반품이 없는 서점을 뜻하는 특별 출판 기획전으로, 최근 출판 분야 펀딩의 성장세에 힘입어 와디즈가 선보인 행사이다. 인공지능(AI) 아트, 민화, 사진집 등 차별화된 큐레이션을 통해 독특한 분야의 도서와 전자책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무

서점은 ▲AI아트 ▲북스툰 ▲북케이션 ▲북 프리랜서 ▲키즈 등 총 5개 분야로 콘텐츠를 소개한다. 북스툰 카테고리에서는 방 안에서 만나는 예술이라는 콘셉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해외 번역서, '내 방에서 만나는 위대한 침묵 '반가사유상' 등을 소개한다.

북케이션 카테고리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콘셉트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직접 그린 도면 작품집을 와디즈 한정판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혜민 기자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사옥에서 열린 '지니뮤직·원밀리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가운데)서인욱 지니뮤직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왼쪽)이유정 안무가와 (오른쪽)원밀리언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니뮤직

지니뮤직

“음악과 춤의 융합”

원밀리언과 K-POP 콘텐츠 협력

미디어 플랫폼 지니뮤직이 댄스 레이블 원밀리언과 콘텐츠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음악콘텐츠, 굿즈(MD) 등 부가콘텐츠, 공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원밀리언은 국내 최고 안무가 리아킴과 45명의 전문 안무가가 이끄는 댄스 레이블이다. 지니뮤직은 음악플랫폼, 콘텐츠, 인공지능(AI)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원밀리언과 공동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인욱 지니뮤직 대표는 “당사의 음악 사업 경쟁력과 원밀리언의 퍼포먼스 제작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량 원밀리언 대표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음악과 춤, 콘텐츠를 융합해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경험을 제공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